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9차 세션 , 갈릴리 에서의 예수의 사역 , 3부, 예수의 가르침 과 기적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여기는 댄 다코 박사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9, 갈릴리에서의 예수의 사역, 3부, 예수의 가르침과 기적입니다.

성경 e러닝 학습에서 루가 복음에 대한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루가 복음의 몇 장을 다루었고, 이 단계에서는 6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특정 강의에서는 6장과 7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재 진행 중인 몇 가지 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예수님은 북쪽의 더 넓은 지역인 갈릴리에 계셨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가장 큰 도시였고, 예수께서는 그 넓은 지역에서 사역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과 7장은 여전히 갈릴리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6 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읽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곡식밭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집어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이 배고프다고 해서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가져다가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제가 언급한 것을 눈치채셨거나 이 구절을 간단히 읽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6장과 7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토론에서 제가 제기한 주요 요점은 여기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예수의 논쟁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예외가 있고, 예외에 대한 선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례는 다윗이 어느 시점에서 예외가 될 수 있었고, 그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그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는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포함하는 또 다른 기적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대할 것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저는 6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셨는데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를 고발할 구실을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이 마른 사람에게 와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거기 섰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묻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나 악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나? 생명을 얻는 것과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나? 예수께서 그들을 둘러보신 후에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논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를 어떻게 할지 논의했습니다. 저는 이 특정 사건을 특정한 문화적 이유 때문에 좋아합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입니다. 예수와 서기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전통적인 서양 분위기에서 발견할 수 없는 문화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중 몇 가지를 지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생각은 그분을 고발하고 아마도 그분이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몇 가지 법을 어겼을 것이라고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주목할 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손이 마른 사람을 불러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를 고발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어서, 얘야, 일어서라고 했고, 그는 이리 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왔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또는 이 나라들 중 어느 나라에서 글을 읽는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세상입니다. 당신과 함께 즐기도록 하세요. 이 명예와 수치 문화.

그는 이 큰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데려가 매우 끔찍한 상태에 처하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게 당신에게는 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당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을 불러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일어서고,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대중의 관심을 그 주제로 끌어들이는 다음, 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에 예외가 있다면, 그 예외 중 하나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핵심적인 예외 중 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는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오, 맞아, 누군가가 여기서 안식일 법을 어겼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남자를 불러서 앞에 서서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겨냥하게 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한 일은 그 남자를 고쳐준다면, 그는 바리새인들을 후자에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는 조용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느낄 것이지만, 본문은 지금과 그때 사이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남자를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서 가운데 서서 그 남자를 잡아눕혔고, 예수의 질문은 대답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질문을 표현한 방식은 당신이 대답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해를 끼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멸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내 손을 잡았다고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저 둘 중 하나 또는 둘 중 하나를 말했을 뿐이고,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손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서 있고, 예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는 그들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은 구원받아야 하며, 신은 기적적인 행위를 통해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으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손을 뻗고, 그는 치유됩니다.

바리새인을 필사한다면, 지금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 구절의 끝에서 그들이 격노했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이 특정 구절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그냥 훑어보고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구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외부인이 알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명예와 수치 문화 요소를 좋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모두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데 동의하고, 심지어 관찰자조차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10절에서 그는 손을 내밀라고 했고, 그는 그렇게 했고, 그의 손은 회복되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를 어떻게 할지 서로 논의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관례라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특정 사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고, 예수도 그들을 크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신의 법에 충실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신의 법에 충실하다면, 신은 그들의 입장을 검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문제 도,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누군가가 살아야 하느냐 죽어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바리새인이라면, 네, 율법을 알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물론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롭다면, 그들을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나는 그 사람을 어차피 치료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크가 하는 다른 일을 주목하세요. 루크는 그 남자의 사건은 오른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과 함께 있는 손은 오른손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또 다른 문화적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 유럽으로 이사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미국으로 이사했을 때,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문화적 배경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났어요. 왼손은 추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손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신이 신 앞에 뻗은 손이에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제 죄를 고백할게요. 여름에 미국에서 아프리카인으로서 교회에서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것만으로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왼손으로 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제가 겪었던 일을 상상해보세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제 고대 유대 문화를 상상해보세요. 왼손은 매우 나쁜 손입니다.

그것은 더럽습니다. 오른손은 매우, 매우 중요한 손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일에 사용됩니다.

가장 강력한 자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강력한 사람의 오른손에 얹는 것조차 진정한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이 오른손, 그의 삶이 달려 있는 가장 유용한 손이 마른 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회당에서 신학적 정확성에 대해 논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내 앞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신이 이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그 남자를 일어서게 하고 앞에 있는 남자를 치료하고 모든 사람을 침묵시켰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서양에 살고 있다면 왼손을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 중동 국가, 아시아 국가에서는 왼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손은 다른 많은 것에는 그다지 좋은 손이 아닙니다.

우리 중 일부는 왼손잡이로 태어나 오른손으로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경우 예수께서 좋은 손을 회복하셨습니다.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열두째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살펴봅니다. 여기 이 기록에서, 예수께서 열두째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의 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의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사역에서 모든 주요 사건은 기도로 선행됩니다. 기도는 예수나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다음에 일어날 큰 일에 대해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기도 철야에 참여했습니다.

이 글은 또한 우리에게 빠르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는 열두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열두 명을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루가는 예수께서 사도로 택하실 열두 제자의 이름을 계속 언급합니다. 물론, 앞서 우리는 시몬, 세베대 형제, 레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루가는 나머지를 요약하고, 나머지를 목록에 추가하고, "알 다시피 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자신에게 부르셨고, 이제 이 열두 제자를 사도로 택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성서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목록을 보면 때로는 목록이 같고 때로는 다릅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목록에 아주 약간의 차이 또는 독특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이름에 다대오가 없습니다.

마태와 마가에게는 그게 있지만, 누가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앞서 누가가 마가를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누가가 그걸 덧붙이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는 다른 일을 했어요.

루크는 유다가 두 명 있고, 다른 사람들은 유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유다는 다데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크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물론 두 번째 유다는 이스가리옷 유다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의 목록을 우리에게 준 후에, 사람들이 예수의 사역에서 알게 될 큰 회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6장 17절에서 19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읽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넓은 평지에 섰고, 많은 추종자들과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대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그들이 이때 갈릴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티레 와 시돈 의 해안에서 왔습니다 . 그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질병을 고치려고 왔습니다.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만지려고 했는데, 치유의 힘이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이고, 그는 모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모인 군중을 거느린 예수께서는 이제 평지 설교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평지 설교는 마태의 산상 설교에서 다루는 주제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루가 복음서를 가르치러 갈 때, 루가 복음서의 평야 설교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때때로 너무 강력해서 그냥 읽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 내어 읽어서 루가 복음서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럼, 루가 복음서 6장 20절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그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만족할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쫓아내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인자 때문에 악하다고 욕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그 날에 기뻐하고 기쁨으로 살아라. 보라,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서 크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한 것이 이와 같으니라.

화면에 있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한 것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2인칭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지 않고, 여기서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없지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개인화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설교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지적합니다. 축복받은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청중에게, 제가 몇 분 후에 읽어드릴 것처럼, 적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도전합니다. 루가의 경우, 예수님은 청중에게 내면의 성격을 개발하라고 도전할 것입니다.

하워드 마셜이 루가 복음 주석에서 쓴 대로, 설교는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세션에서 주제를 전개하며, 캐치워드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

인간이 사랑과 자비를 보여야 할 필요성, 그리고 기본적이고 내면적인 순종 태도의 필요성에 총체적으로 중점을 둡니다. 루가의 설명을 따라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어의 힘에 의지하여 소리 내어 읽고 싶습니다.

루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배부른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지만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배고픈 자는 복이 있으나 배부른 너희에게는 화가 있나니 너희가 배고프리라. 웃는 너희에게는 화가 있나니 너희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너희가 애통하고 울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는 화가 있나니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한 것이니라.

여기 던져버리고, 27장에서 곧 읽을 건데, 제발,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26 절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칭찬할 때, 당신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때, 당신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27 절, 그러나 나는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당신의 겹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튜닉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구걸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당신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비난하지 말고,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황금률이 적용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루크는 여기서 강력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축복받은 자들과 그가 화가 있다고 말한 자들 사이에 날카로운 대조를 그립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으로부터 빈곤 신학을 구성하려고 거의 시도했습니다. 오, 루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야, 모든 것이 잘된다면, 당신에게는 뭔가 나쁜 것이 있습니다.

제발, 저는 루크가 전혀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루크는 테오피로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테오피로스란 신사였습니다. 루크는 마음의 자세, 구현할 수 있는 관대함, 그리고 사회 전반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살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지적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당신이 일할 수 있고 신이 당신을 축복할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일입니다. 아니, 결국, 그가 주라고 말하거나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망토를 가져갈 때, 그것은 줄 수 있기 위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망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 망토를 줄 수 있기 위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루크는 어떤 의미에서든 빈곤 신학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중심적인 문제와 균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셨지만, 우리를 고립된 채로 만들고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웠습니다. 용서가 주어지든, 지원 체계가 주어지든, 그것은 가르침의 종류이고, 여기서 진행되는 가르침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물론, 황금률을 강조하는 31절, 또는 공자가 반복한 황금률이 된 것을 그리스 철학자들이 반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6장 32절에서, 그는 산상수훈, 아니 평지수훈을 계속하면서,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죄인인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 선을 베푸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을 것을 바라는 자에게 빌려준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느냐? 죄인들도 같은 액수를 받기 위해 죄인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러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같이 자비하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주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좋은 척도, 눌러라, 기대어라, 훑어라, 무릎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네가 쓰는 척도가 네게도 척도가 될 것이다. 그는 또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다 온전하게 훈련된 사람은 모두 선생과 같을 것이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다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러면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법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평야 설교의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을 가르치고 도전합니다. 통나무와 점토에 매우 익숙한 목수의 집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그는 통나무와 톱밥을 사용하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 자기 평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재빨리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더 나은 선택은 내성적이 되고, 자신을 검토하고, 나쁘거나 사악한 것을 제거하여 신뢰, 아니 대담함을 얻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즉시 당신의 죄책감을 전가하고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잠깐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제시하는 종류의 예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치 눈에 들보를 얹고 망치를 들고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눈에 있는 들보는 누군가의 눈에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작은 톱밥 조각인 티끌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선생님이시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관찰하도록 도전하십니다.

한 작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들이 하는 일로 판단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의도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좋은 이유가 있다고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아니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성적이 되세요.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점검하세요. 당신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세요. 당신의 눈 속의 들보를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쪽의 티끌을 분명히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했듯이요. 평지 설교에서 이것을 분명히 확립한 후,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자신의 연민과 연민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구현하기를 바라는 태도, 그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과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자신의 연민을 나타내셨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장. 여기서 저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백부장의 노예를 고치신 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설명에서 우리는 백부장이 잘 지내지 못하는 노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본문을 집어서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다른 본문을 읽을 것이므로 이 본문은 건너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람이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백부장은 어느 순간 노예를 어린아이로 언급합니다. 그는 문제의 노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군인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이제 이방인을 대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때, 실제로 유대인 친구들을 보내어 그를 대신하여 중재하게 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 그가 실제로 그에게 직접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대신하여 온 유대인들은 예수께 이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을 정도까지 했습니다. 백부장은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권위가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안다고 말함으로써 담론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립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신하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명령하면, 일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자신이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는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의 종들은 잘 지낼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권위로 전달하신다면,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그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저 말하고 일을 이루라고 말하는 이방인의 믿음에 놀랐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연민을 보여주셨지만, 누가복음에서 그는 또한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곧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시니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함께 있더라 그가 그 마을의 문에 가까이 이르니 보라 죽은 사람이 메어 나가는 것이니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 어머니는 과부였고 그 마을에서 많은 무리가 그와 함께 있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붙잡고 여기시어,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가오셔서 곁을 만지셨고, 운반하는 사람이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청년 이여, 그리고 운반하는 사람이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청년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이 보고는 유대와 주변 모든 나라에 퍼졌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많은, 많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간결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부가 아들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실 때 일찍 언급한 내용과 엘리야와 엘리야의 사역의 상황이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중조차도, 참으로 대단하다,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놀라운 예언적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언적 사역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신을 예언자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와서 ,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선견지명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이 가짜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하지만 그들은 그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여기서 예수를 선지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에서 했던 일들 중 일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당신이 봐야 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고 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시리즈의 문화적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과부와 유대인 과부가 되는 것은 가정의 남성 인물이 생계를 책임지고, 돌보고,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남편이나 저명한 남성 인물이 주변에 없을 때, 주변에 있는 나이 많은 남성 인물이 책임을 집니다. 이 여성이 남편을 잃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녀는 그녀의 삶을 도울 즉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서의 모든 희망과 열망, 심지어 그녀의 지원 시스템조차도 어떻게든 이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루크는 그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합니다. 루크는 그가 그 이유로 외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 전체가 그녀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누가의 이야기에서 외아들을 묻으려고 했던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산이 폭락하는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연민을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삶에 대해 무언가를 하실 것입니다. 누가 기록한 대로, 연민으로 그는 먼저 그 여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한 후에 그는 그 젊은이를 다시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방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우.

우리는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루카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개인적인 접촉을 보여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소년을 데려갔고, 그 소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개인적인 접촉을 좋아합니다. 그는 병들어 찾아오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나병환자를 만질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경우, 그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아이를 데려가서 몇 초 전에 아들을 잃고 울던 어머니에게 주어서 개인적인 접촉을 줄 것입니다. 개인적인 접촉을 가진 예수님의 사역.

군중의 반응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했을 때, 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왔다고.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루크는 예언적 예수, 예언적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가 바로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을 조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의 삶에서, 당신은 당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의 삶에서, 당신은 어려운 상황을 다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는 당신의 관심을 그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으며, 격려, 치유, 회복의 근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그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해도 될까요?

그는 죽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상황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데려와 당신을 만지게 할 수도 없지만, 그는 당신의 외침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날, 과부는 그녀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녀는 남편을 잃었지만, 그녀의 삶에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분 전,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남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소년을 살아서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부장의 노예처럼 예수는 여전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위해서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시리즈를 저와 함께 지적 연습으로만 따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을 열고 이런 식으로 복음의 힘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더 광범위한 서사의 수혜자가 되고 그분을 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7장 18절에서 23절에서 예수께서는 한 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사역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그는 예수께서 자신이 그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도록 도울 수 있다는 질문과 함께 그들을 돌려보낼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제와 관련하여, 바로 이 단계에서 예수께서 도널드 밥티스트에게 선언문이 바뀌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실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가 갈릴리에서 이사야를 읽을 때 한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장 22절에서 23절에서 그는 그들이 이 메시지를 요한에게 다시 보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가서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네가 들은 것을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먼 자가 시력을 얻고, 절름발이가 걷고, 나병이 있는 자가 깨끗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과부의 아들처럼 살아나고 ,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와우.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화면에 나란히 놓아서 그가 이사야 4장 18절에서 읽은 선언문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라.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자세로 오지 않으시고, 저는 다 압니다. 저는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널 괴롭힐 거야. 아니, 아니. 그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온다.

하지만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옵니다. 애도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져다주기 위해.

병든 사람에게 치유를 가져다주고, 시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주고자 합니다. 네, 그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역의 본질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설명했듯이. 7, 27~28절.

요한은 이 사람이 이 말씀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서 들으셨을 때. 보라. 미안하지만, 예수께서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보라, 내가 네 얼굴 앞에 내 사자를 보내어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말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요한의 사역에 대해 듣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중 앞에서 요한의 눈에 띄는 모습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사역에서 번창하고 있어요. 이걸 읽을 거예요. 이 특정 강의를 끝내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7장 29절부터 35절까지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는 동안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특정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매우 논란이 많은 토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치유에 관하여. 예수께서 관여하셨던 특정 여성에 관하여. 그의 사역 중 어느 때인가.

7장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모든 백성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세리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로.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31절. 그러면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할꼬? 무엇과 같으냐? 시장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서로를 부르며, 우리는 너희에게 피리를 연주했다. 그리고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네덜란드어 를 불렀다 . 그리고 당신은 울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은 빵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왔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보라 말합니다.

탐식가이자 술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러나 지혜는 그녀의 모든 자녀들에 의해 정당화된다.

여기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학습의 여정을 계속해주시길 권장해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간의 아들에게 온갖 이미지를 투사하는 고발자들에게 가담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얻고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여행하여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세상에서도. 우리를 통해 우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많은 삶을 만듭니다.

신이 당신을 축복하고 축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Dan Darko 박사와 그의 루가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9,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3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입니다.